

넓은 원전에 전문성 없는 번역

로런 지음 《세계과학문명사 1·II》를 읽고

송상용

한림대 교수 · 과학사

통사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과학사에서도 통사는 많지 않으며 잘된 것은 극히 드물다. 성공적이라는 평판을 받은 통사 두가지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나와 있다. 메이슨의 《과학의 역사》(박성래 옮김, 까치)와 브로노우스키의 《인간 등정의 역사》(김은국 옮김, 범양사 출판부)가 그것이다. 메이슨의 책은 오래 된 것이 흠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표준 교과서이다. 그것은 일반인도 읽을 수 있으나 대학교재로 더 적합하다. 반면 브로노우스키의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며 BBC TV로 방영되어 크게 인기를 끌었다. 과학기술사를 주제 중심으로 짚는데 독자를 빨려들어가게 하는 수준높은 문학작품이다.

넓고 허술한 내용

이번에 나온 로런의 《세계과학문명사》(김동광, 권복규 옮김)에는 원서에 관한 정보가 빠져 있다. 이 책은 1982년 미국 팩스 온 파일에서 《세계문화발달사 속의 과학》으로 선보였고 이듬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에서 《케임브리지 그림세계과학사》라는 다른 제목으로 나왔다. 몇해전 그림을 보려고 사 두었다가 이번에 처음 읽고 놀랐다. 1984년 과학사전문지 《아이시스》의 서평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재”라는 혹평을 받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은이 로런은 런던대에서 과학사를 공부했고 니덤연구소의 행정을 맡고 있을 때 몇번 만난 일이 있다. 그는 니덤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 축약판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다.

《세계과학문명사》는 일반이 읽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고 대학교재가 되기에는 너무 넓고 허술하다. 한마디로 죽도 밥도 아니다. 하품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고 7장까지 겨우 읽고 이 글을 쓴다. 이 책이 권위 있는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의 심사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모르겠다. 교인이 된 지은이의 양심을 의심한다. 이 책은 우선 고대과학을 중동·라틴아메리카·그리스·중국·인도로 나눈 다음 고대에서 20세기까지의 과학을 개관하고 있다. 서술방식은 과학자의 전기 또는 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자료를 나열했을 뿐, 해석은 별로 없고 일관된 흐름을 잡지 못했다. 그래서 머리만

이 책은 우선 고대과학을 중동·라틴 아메리카·그리스·중국·인도로 나눈 다음 고대부터 20세기까지의 과학을 개관하고 있다. 서술방식은 과학자의 전기 또는 분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나열했을 뿐 해석은 별로 없고 일관된 흐름을 잡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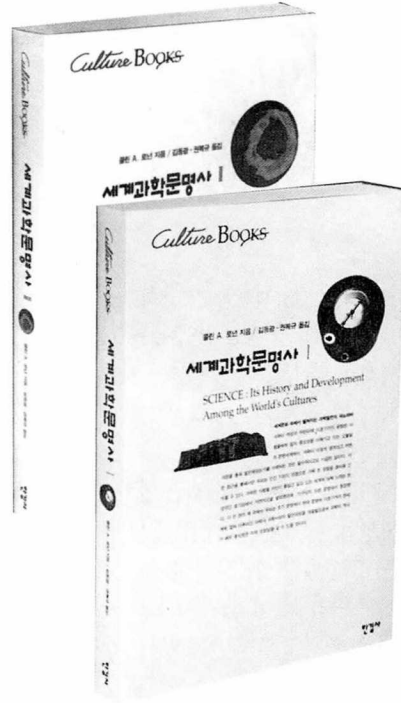
복잡해지고 정리가 잘 안되어 지루하기 짝이 없다.

로런의 책을 읽다 보면 50년전에 나온 사튼의 책을 읽는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문화를 강조하고 과학의 진보를 믿으며 그리스말을 원음으로 표기하는 것까지 둘은 닮았다. 내용이나 참고문헌을 보면 로런이 아직 사튼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사튼 이후 과학사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한 세대 동안의 진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조금 흥내를 내는 책인지 기본은 넓은 과학사에서 한 걸음도 못나갔다. 이 책은 쿤의 패러다임 얘기로 그럴 듯하게 출발한다. 그러나 그리스에서 과학과 철학이 한 몸이었다는 것도 모른다. 파르메니데스는 과학자가 아니었고 플라톤은 과학을 저해했다고 한다.

단편적 오류도 많아

니덤의 저작을 자세히 읽은 로런은 중국 과학 얘기만 하고 왜 중국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는 한 문단으로 얼버무린다. 그는 퓨리티니즘의 가치관이 근대과학의 발생에 도움을 주었다는 머튼명제도 언급하고 있으나 너무 간단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헤르메스주의가 과학혁명에 이바지했다는 에이츠의 주장도 장황하게 옮겨 놓았으나 문제의 핵심을 전달하는 데는 실패했다.

레기오몬타누스가 죽은 뒤 헬리오텐성을 관측한 것으로 되어 있다든지 일반상대론과 특수상대론을 혼동했다든지 많은 단편적인



오류는 지적하지 않기로 한다. 심각한 문제는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이 책이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크게 오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번역은 대체로 훌륭하다. 옮긴이들은 이름난 번역가이고 과학사 강의를 들은 일이 있어 생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사학자에게 원고를 미리 보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착오가 적지 않다.

전분(녹말) 같은 넓은 용어, 정입방체(정다면체) 같은 잘못된 말도 보인다. 척력, 역비례는 지금은 반발력, 반비례가 된 일본말이다. 주전원·중원·무심원은 동양 3국에서 여러가지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으나 나는 천문학사학자 고 유경로교수의 의견을 따라 소원·대원·대심으로 쓰라고 권하고 싶다. 조수·조류·조력은 조석으로 써야 한다.

연금술에서 기저금속은 천한 금속이다. 비금속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한글로 쓸 때는 ‘卑’와 ‘非’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천한’이라 쓰는 것이 좋다. ‘elixir’를 연금약이라 했는데 중국에서는 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으니까 단약 또는 불로장생약이라고 하는 게 옳다. 중국에는 친구의 개념이 없었는데 하늘을 친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다.

유사과학은 사이비(pseudo)과학이 정확한 말이다. 유사(quasi)란 말은 따로 있다. ‘기하학원본’은 ‘기하학원론’이 맞는다. 원

래는 ‘기하학’이라는 말도 없지만 말이다. ‘광물의 서’, ‘식물의 서’는 일본식이 아닐까. ‘광물책’, ‘식물책’ 하면 될 것이다. 지동설은 보편화된 말이지만 태양중심설이 정확한 말이다. 그리고 천체는 ‘순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한다. 천문학에서는 ‘관찰’보다 ‘관측’이 적절한 말이다.

철학용어 등 다소 혼란

자연주의자는, 지금은 안쓰는 말이지만 박물관학자라고 해야지 오해할 염려가 있다. 알렉사드리아의 ‘박물관’은 무제이온(museum)이라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것은 박물관뿐 아니라 도서관, 연구소, 대학을 겸한 종합연구센터였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의술(art)은 길고 인생은 짧다”에서 의술이 예술로 옮겨졌다. 물론 롱펠로우의 경우에는 ‘art’는 예술이다.

철학용어에도 다소 혼란이 보인다. 아낙시만드로스의 ‘토 아페이론’은 무한자로 쓰인다. 아낙시메네스의 공기도 ‘프네우마’(숨)에서 온 말인데 어원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아낙사고라스의 ‘누스’는 정신으로 옮기면 곤란하니 그대로 쓰는 게 무난하다. 원자론의 ‘보이드’는 허공으로 옮겨 쓴다. 중세역학에 나오는 ‘임페투스’는 적당한 말이 없어 그대로 쓰는데 ‘운동량’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이 책의 외국어표기는 놀랄 만큼 정확해 감탄했다. 그래도 몇가지 지적해 보자. 사튼식으로 그리스 원음표기는 찬성인데 밀레토스 에페소스는 왜 밀레투스 에페투스일까? 아킬레우스도 아킬레스가 맞는다. 이왕이면 ‘일리어드’, ‘오디세이’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로 쓰면 어떨까? 그노몬(규표)은 영어나 ‘노몬’이다. 칠레교추는 ‘칠레에서 나는 고추’ 같다. 칠리가 옳다. 지명 오악사카, 텍소코는 각각 오아하카, 테호코이다. 형용사 ‘비잔틴’은 명사 ‘비잔티움’으로 써야 한다. 원서의 책임이지만 ‘아라비아’는 반도에 국한된 인상을 주므로 ‘아랍’으로 바꿔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나온 책이니 틀린 것을 바로잡아 재판을 내기 바란다. ◆

한길사/A5신/각 400면 내외/각 13,000원 내외